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된 네덜란드 입양아 남매 천운선·광우씨. 입양되기 직전까지 미물던 광주시 남구 양립동 '총현원'의 한 건물 앞에서 유혜향 원장(사진 왼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입양 남매 가족 찾았다

천운선·광우씨, 4남매 생존 확인...어머니는 사망 '눈물'

네덜란드 입양아 남매 천운선씨와 광우씨가 두번 울었다. 꿈에 그리던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에, 그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친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한 천운선(여·37·네덜란드명 베로나카)씨와 광우(35·다니엘) 남매는 주변의 도움으로 32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게 됐다.〈본지 9월18일자 20면〉

18일 '총현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75년 7월 충현원에 머물다 해외 입양된 천씨 남매의 친모를 찾기 위해 화순경찰서 등에 문의한 결과,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남매가 알지 못하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는 첫째 천일우(48·경기도 화성시), 둘째 천월진(여·46·해남군), 셋째 천성우(45), 넷째 천진우(43·경기도 의정부시)씨로 다섯째인 천운미(여·2001년 사망)씨는 6년 전에 사망했다.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천씨 남매는 먼저 맏형인 일우씨와 넷째 진우씨를 만나게 되고 조만간 화순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함께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태풍피해 학생 돋기 나선 총장님

김혁종 광주대 총장, 19일 '사랑의 카페' 운영

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불우 학생을 돋기 위해 '사랑의 카페'를 운영한다.

광주대는 "김혁종 총장이 가을 대동제 기간인 19일 '사랑의 카페'를 운영해 수익금을 불우학생과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사랑의 카페'에서 자신이 직접 구운 전어와 닭발, 돼지머리고기, 과일 등의 안주와 막걸리, 맥주 등을 판매한다.

김 총장은 지난 2003년에도 '수재민 돋기 총장 주막'을 운영해 수익금 1천332만원을 수재민 돋기에 기탁했다. /정상필기자 camus@



GS칼텍스, 쌀·김치 등 '전남공동모금회'에 기탁



GS칼텍스가 18일 추석을 앞두고 여수시 오림동 진남체육관에서 10kg들이 쌀 990포대와 5kg들이 김치 1천300 박스 등 모두 5천79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과학 공부, 우주비행사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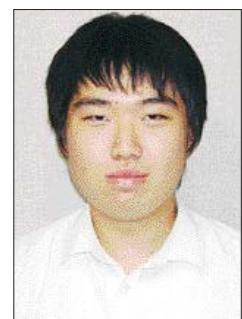
'우주과학경진대회' 모형로켓 부문 대상 광주 평동중 김대현군

"제 2의 한국 우주인이 되고 싶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열)이 주최한 '제5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모형로켓 부문 최고상인 대상(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차지한 김대현(15·평동중 3년) 군의 장래 희망이다.

모형로켓 부문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만든 모형로켓이 훈련될 없이 빽바로 날라가는지, 하늘로 올라갔던 로켓이 안정성 있게 낙하산을 펼치고 땅으로 착지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광주에서는 대상을 놓쳐 금상에 머



물렸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서 이렇게 큰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과학을 계속 공부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교내 과학탐구반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군이 모형로켓에 관심을 가진 것은 두 살 터울의 형 때문.

김 군의 형도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모형로켓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김 군의 형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결국 청출어람(青出于藍)이 된 것이다.

김 군은 "전국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은 하루 3시간 이상씩 맨연습을 했다"며 "날개를 120도로 맞춰야 안정감 있는 로켓이 만들어진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초·중·고교생 4천772명이 참가해 지역 예선을 거쳤고, 660여명이 본선을 치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LG생건 화장품 모델에

탤런트 공유 발탁

MBC '커피프린스 1호점'의 스타 공유가 월드 스타 비의 바통을 이어 LG 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오희의 모델로 발탁됐다.

LG생활건강은 18일 "현재 오희의 모델로 활동 중인 손예진, 김아중과 함께 이번에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공유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말아톤' 배형진 시드니 국제마라톤 출전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씨가 23일 호주 시드니 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다.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씨 등 장애인 선수 7명이 출전한다.

18일 푸르메재단 등에 따르면 배씨가 시드니의 명물 하버브리지(9km)를 달리는 단축코스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 선수 7명이 출전한다는

것이다. 두 다리가 없는 절단장애인으로서 로키산맥에 올랐던 김세진(11)군도 이번 대회에서 의족을 달고 3.8km를 뛸 예정이다.

인사

◆문화관광부
◇팀장급 전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콘텐츠개발팀장 김재철
◆KBS
▲광주방송총국장 김진석 ▲전주방송총국장 정초영

▲민묘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 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한미음장애인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 힘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청수 조지 축구회 회원 모집=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장조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립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 있는 분



■'광주 외국인의 날'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 1위 무하웅딘 아함마드 씨

"존댓말·반말·속어 구분 너무 어려워요"

"라마단 기간이라 아침부터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지만 우승을 차지하게 돼서 힘이 절로 납니다"

최근 열린 광주국제교류센터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 한 무하웅딘 아함마드(24·방글라데시)씨가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국어 익힌 뒤 경영학 공부할 것

이날 대회는 제 13회 광주외국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예선을 통과한 외국인 4명이 '웃음은 가장 좋은 악이다' '거시기' 등의 주제로 경쟁한 경쟁을 펼쳤다.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째라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

습니다"

아함마드씨는 '6개월 동안의 한국생활'을 주제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어려운 점 등을 유창한 한국어로 표현해 50여 명의 관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고 눈이 작다고 생각했었으며, 한국에 와서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을 보고 가장 놀랐다는 고백에는 관객들의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국어는 존댓말, 반말, 속어 등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소통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번은 교수님을 불 일이 있어서 상담을 위해 존댓말을 열심히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무사히 상담을 잘 끝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점심 맛있게 먹어'라고 하신 말씀에 '어'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각했죠"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온 아함마드씨는 현재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경영학부에 입학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공부를 끝내면 고국으로 돌아가 국제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라마단 금식은 신념이자 문화

시대에 다른 나라를 알고 언어를 아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돼 이슬람교도인 아함마드씨는 엄격한 금식을 하고 있다.

"일출시간에 금식을 하느라 목도 마르고 힘



들지만 이것은 제가 지켜야 하는 신념이고 문화입니다. 아직도 이슬람문화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고 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각각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한국어를 더 공부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7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봉사상-임송본씨, 경제상-이혁영씨

체육상-박일남씨, 특별상-오영희씨

2007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목포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종득 시장)를 열고 2007년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사회봉사 부문에 사회활동가인 임송본(65)씨, 경제부문에 씨 월드고속폐리 이혁영(61)대표이사, 체육부문에 생활 체육인 박일남(62)씨, 특별활동 부문에 한국 소비자연맹 목포 지회장 오영희(여·69)씨를 부문별 수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올해 시민의상 시상식은 목포시민의 날인 다음달 1일 열린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이명희 전 장흥부군수 19일 출판 기념회

'정남진 장흥에 희망을 쏘다'

이명희(58) 전 장흥부군수가 19일 오후 3시 장흥군민회관 3층에서 자전적 저서 '정남진 장흥에 희망을 쏘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전 부군수는 이 책에 자신의 유년기부터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기까지 인생역정과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시와 산문을 담았다. 또 친환경농업·그린 투어리즘 육성과 해양레저휴양단지 개발 등 장흥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장흥을 대표하는 장

한 전 부군수는 "장흥부군수로 2년 반동안 일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나누었다"며 "낙후된 장흥의 '희망시대'를 주민들과 함께 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불링동호회 '디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월 금요일 011-607-0347

▲한국음악협회 회원 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한국복지재단 전남기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전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애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이기초씨 별세 박종백(광주 도시철도공사 회장역장)씨 모친상 =발인 20일(목) 강진군 강진장례식장 3분향소, 061-432-4004

▲김성태씨 별세 영수(재미)·영재(전 현대백화점H&S)씨 부친상 =발인 19일(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번소, 02-3010-226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개장과 함께 트랙볼트 구리로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부동 521-11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최기술(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차남 정민(KBS